

---

제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8년5월16일(단기4291년) 상오10시20분

---

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개회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 

(10시 20분 개의)

○간사장 김형익; 자리를 정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2회임시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대하여 경례…….

(일동 국기경례)

착석해주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개회사의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2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疆土内에서는 뜻하지않은 폭풍이 불어왔든 것이올시다.

5·2총선거를 우리가 돌아다볼때에 말할 수 없는 풍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몸 조심해서 별고없이 오늘 이 자리에 다같이 출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마음가운데에 기대해서 마지않

읍니다.

우리가 생각할때에 우리 국리민복을 위해서 반드시 공헌해야만 할만한 이러한 국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를 뽑아내는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법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국민의 대표를 뽑아내서 국사를 하게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칙을 어기고 우리가 지난일을 생각해볼 때에 모든 국민의 권리를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무시한 환경속에서 우리국민은 살아왔습니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도인 또 문화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인 우리서울 한복판에서도 그와같은 일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때에 우리후세를 위해서 통탄하지않을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런고로 의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는 오로지 시민의 대변자이요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들로서 우리국민이 우리시민이 발휘해야할 자기의 주권을 잃는다든지 또는 우리시민에게 해가 도라오는 일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는 대변자로서의 여기에 대책과 여기에 대한건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생각하지않으면 안될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 임시회의를개회하게된 이마당에서 물론 우리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건을 처리해나가는데에 우리의 아량있는데로 우리의 역량이있는데로 다 기울려서 우리의회야말로 우리시민의 대변기관인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서우리의 임무를 완수해나가주시기 바라고 금번회의에 여러가지 사건이 원만한가운데에 처리되기를 바래서 잠깐 개회사로서 말씀들인것이올시다.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게시하겠습니다.

○시장대리 신용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제22회임시회의에 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시의회가 구성되어서 어언 근이년간 그간에있어서 의원제 위계서는 시정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보람이 있어서 시정전반은 날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대하여는 동경하여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있어서 심의하고 검토되는 제반안건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건설적인 견지에서 다각도로 논의와 검토가 되어서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단기4291년5월16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원영위원장께서는 몸이 편치않으셔서 부위원장께서 선창해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 우리의 신념과 굳은 결의로서 우리 서울시 의회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그결심하에서 만세삼창를 부르겠습니다. 만세…….

(일동 만세삼창)

(박수)

○간사장 김형익; 이것으로서 제22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개회합니다.

약5분후에 10시35분부터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0분 폐회)

---